

지금
해외에서는
●
VENTURE

글 노승준 / CJK스트래티지 대표

포스트 IT시대의 지식 합종연횡

IT버블이 꺼지고 ET, NT, BT 등이 융합되는 가운데 기술지식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초 내지는 응용연구가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게 하는 산학협동이라는 개념은 이제 진부할 정도로 익숙하다. 그러나 최근 구미 및 일본에서는 산학협동의 새로운 조류가 일고 있다.

경쟁자의 협동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와 미국의 MIT.

과학기술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두 대학이 힘을 합하여 Cambridge - MIT Institute (CMI)를 만든 것은 2000년 7월. 이미 각자 하고 있는 기술의 산업이전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예로 인공뼈를 만드는 프로젝트에는 두 대학의 재료, 기계,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교수들 1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후원하는 기업은 교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프로젝트 팀 전체의 연구결과를 각자의 입장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대학의 연구팀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현상은 일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낸 교토대학의 경우 2002년 8월에 만든 고기능소자 연구팀에는 5개의 기업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즉 경쟁자들이 연구개발까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협조하고 실용화, 상품화에서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공동기술이전

동경의 간다라는 곳은 원래 동경이 에도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성밖의 상업지구이다. 서울로 치면 4대문 밖의 청량리나 영등포와 유사한 곳이다. 이 간다에 위치한 명치대학, 동경전기대학, 그리고 일본대학이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공동기술이전 및 벤처시설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에도밸리(edo valley). 이 에도밸리가 하는 일은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벤처기업을 하며 나아가서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도 특화하여 명치대학은 경영 및 법률, 동경전기대학은 전기전자, 그리고 일본대학은 이공계의 전문가들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쟁하는 기업, 대학들이 힘을 모으는 현상은 이익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금융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기상청의 청사에는 약 80명의 금융전문가들이 모였다. 기상청에 난데없이 금융전문가가 모인 까닭은? 내막은 기상변화가 금융파생상품의 가치를 예측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한 모임의 결성이다. 모임은 이름하여 '아르고 계획'. 마치 영화의 첩보작전을 연상케 하는 코드네임이다.

'아르고 계획'에 참가하는 멤버들의 소속을 보면 대학, 기상청, 문부과학성, 증권회사, 보험회사, 가전회사, 섬유회사, 운송회사, 농산물관계회사 등 다양하다. 즉 기상의 변화가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미래가치에 주는 리스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다. 이러한 금융공학 분야에서의 협력은 여러 대학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동경대학의 첨단경제공학연구소, 동경공업대학의 이재공학연구센터, 교토대학의 금융공학연구센터 등이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동은 새로운 도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보자. 기업과 연구소의 일대일의 폐쇄적 관계에서 연구비대비 실용성이 적은 결과 제공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더구나 앞으로 국립대학의 법인화라는 새로운 조류가 밀고 들어올 때 대학의 연구가 개별기업의 도구가 되는 상황은 미리 경계해야 할 지 모른다.

CJK
Strategy

CJK스트래티지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